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기간 : 2023.09.01(금) ~ 2023.09.07(목)

제공일시 2023 09 15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

문의 02 398 7675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기간 : 2023.09.01(금) ~ 2023.09.07(목)

제공일시 2023 09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##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

### 1. EU, 11월 COP28서 '화석연료 단계적 퇴출' 다시 밀어붙일 듯

- 유럽연합(EU)이 작년에 이어 올해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도, 이른바 '글로벌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' 제안을 다시 밀어붙일 것으로 보임
- 앞서 지난해 COP27 정상회의에서도 EU 등을 주축으로 유사한 협상안이 제시됐지만 당시 200여개국 중 80여개국만 지지하는 데 그쳤음
- EU는 11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(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)을 앞두고 마련한 협상 입장 초안에서, "기후중립 경제로 전환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할 것이며, 화석연료 소비의 정점도 이미 근접했다"고 적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
- COP28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, 구체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

(연합뉴스, 2023.09.01) 정빛나 기자

### 2. 기후정상회담, 아프리카 탄소배출권 위해 수억달러 약속

-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기후정상회담을 열고, 2030년까지 아프리카의 탄소배출량을 19배 늘리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음
- 아랍에미리트 투자자들은 지난해 이집트 COP27정상회의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탄소시장 이니셔티브 (ACMI)로부터 4억5000만 달러 규모의 탄소크레딧을 구입하기로 약속했음
-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탄소크레딧, 탄소 상쇄 등 시장기반 금융수단을 추진하고 있음
- UAE는 아프리카 기후금융리더로 입지를 다지고 있음을 밝혔고, HSBC자산운용도 2억달러 투자를 발표했다음

(Reuters, 2023.09.06) Duncan Miriri 기자

### 3. “2030년 전기차 420만대·충전기 123만기 보급”

- 환경부는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‘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강화 협의체(이하 협의체)’를 발족함
- 또, ▲정책·제도 ▲전기차 ▲배터리 ▲충전기 등 4개 전문분과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강화 방안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을 논의함
- 정책·제도 분과는 전기차 및 충전기를 확대하는 데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법·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함
- 전기차 분과와 배터리 분과는 각각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 및 관리를 위한 화재 예방 기능 추가, 배터리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추가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음
- 충전기 분과에서는 화재 예방·대응 기능이 장착되거나,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기능이 있는 충전기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식 등을 다뤘음

(경기일보, 2023.09.06) 김수정 기자

### 1. 탄소 줄이고 경제 살리고...경기도에 '미니 수소도시'

- 경기도가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,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인 '미니 수소도시'를 조성한다고 밝혔음
- 수소도시 조성사업에서 주거 분야는 공동주택 등에 수소 에너지 보급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을, 교통 분야는 수소차와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임
- 경기도는 올해 1개 시군을 선정하며, 수소 생산·유통·활용 등 전 분야 기반시설을 지원하되 기초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할 수 있음
- 사업에 선정된 시군에 3년 동안 총사업비의 50% 이내(도비 최대 50억원)를 지원할 계획임

(서울PN, 2023.09.01) 신동원 기자

### 2. '재생에너지' 풍부한 해남에 '데이터센터 단지'...전남도 국내 최대규모 추진

- 태양광발전소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에 데이터센터가 모여있는 '집적화단지'가 들어설 예정임
- 전남도는 "해남군 산이면 '솔라시도 기업도시'에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·기업과 업무협약을 했다"고 밝혔음
- 도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재생에너지 100(RE100) 전용 산업용지 160만㎡에 국내 최대 규모의 '데이터센터 파크' 조성을 추진하며, 2037년까지 40MW급 데이터센터 25개가 조성될 계획임
- 태양광발전소를 비롯해 대규모 해상풍력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전남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어, 데이터센터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음

(경향신문, 2023.09.04) 강현석 기자

### 3. 정부,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용수공급시설 구축...2천억 규모 철강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 추진

- 정부가 구미, 포항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음
- 정부는 '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'을 발표하여 구미, 포항 등 올해 신규 지정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금융(융자)·보조금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음
-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,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, 연구·개발(R&D)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를 돕기로 했음
- 또 정부는 수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, 민간·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천억원 규모의 무역·수출 금융도 공급하기로 했음

(매일신문, 2023.09.04) 강은경 기자

### 1. 셸, 새 CEO 취임 후 탄소배출 절감 1억달러 투자 계획 비밀리에 취소

- 유럽 최대 석유 메이저인 셸 PLC가, 새로운 CEO가 취임하면서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투자하기로 공약한 1억 달러 투자를 슬그머니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
-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, 와엘 사완이 새로운 CEO로 취임한지 6개월 만에, 연간 1억 달러를 기업 간 상쇄 프로그램인 탄소배출권에 쓰려던 계획을 비밀리에 포기했음
- 게다가 그는 6월 당초 공언한 대로 석유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, 2030년까지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주주 이익을 늘리겠다는 전략의 대대적인 변화를 발표했음
- 셸에 따르면, 당초 목표에 따른 실제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 탄소 상쇄 목표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함

(뉴스퀘스트, 2023.09.03) 김형근 기자  
(글로벌비즈, 2023.09.01) 박정환 기자

### 2. 에니, 이탈리아 최초의 탄소저장 허브

- 이탈리아에서 첫 CCS 프로젝트를 설립하기 위해서 CCS기술에 대한 투자를 위해 이탈리아 에니와 가스 그리드운영기업인 스남(Snam)이 힘을 합쳤음
- 이들이 이탈리아 아드리아해에 만들 계획인 허브는 매년 16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며, 이는 이 나라의 탄소집약적인 산업에서 나오는 연간 순배출량의 절반에 해당됨
- 에니는 CCS허브를 통해 이탈리아를 남부 유럽의 탄소저장을 위한 중추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
- 한편, 비평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화석연료 사용을 연장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음

(Reuters, 2023.09.02) Francesca Landini 기자

### 3. 아마존, 머스크와 저탄소 운송계약 체결

- 아마존과 머스크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해상운송협약을 발표했음
- 2023-2024 협정에는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2만개의 FFE컨테이너 운송이 포함되었으며, 이는 석탄 5000만파운드 연소에 해당하는 4만4600미터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회사는 밝혔음
- 아마존은 204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갖고 있으며, 스코프3 배출량이 전체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함
- 이번 협약의 파트너인 머스크는 '에코딜리버리 프로그램(ECO Delivery Program)'을 운영하는데, 늦 객연료로 대체해주고, CO2 저감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제공함

(ESGToday, 2023.09.06) Mark Segal 기자

### 1. 전기차 블루오션 열린다...정의선 회장, '인니 전략' 들여다보니 [비즈360]"

-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방문에 맞춰 인도네시아를 찾아 현지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,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함
- 재계에 따르면, 정 회장은 오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·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함
- 현대차그룹이 인도네시아를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, 현지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 회장의 방문이 더욱 의미가 크다는 게 업계의 평가임
- 엔진, 의장, 도장, 프레스, 차체 공장,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센터 등을 갖춘 인도네시아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15만대로, 현대차그룹은 이를 향후 25만대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임

(헤럴드경제, 2023.09.01) 서재근 기자

### 2. SK에코, GDS 싱가포르 '데이터센터'에 연료전지 공급한다

- SK에코플랜트가 중국 데이터센터 개발운영 기업 GDS의 싱가포르 데이터센터에 '고체산화물 연료전지(SOFC)'를 공급함
- SK에코플랜트는 GDS가 싱가포르에 구축하는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시스템으로 연료전지를 공급·설치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음
- 이번 협력은 SK에코플랜트와 GDS가 지난해 8월 체결한 '연료전지 연계 데이터센터 사업개발을 위한 협약'에 따라 이뤄졌으며,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양사 의지가 반영됐음
- 싱가포르 데이터센터에 SOFC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, SK에코플랜트는 GDS 데이터센터에 연료전지 공급을 비롯한 연료전지 전체 패키지 EPC(설계·조달·시공) 업무를 맡음

(파이낸셜뉴스, 2023.09.04) 최윤준 기자

### 3. 포스코인터, 미국서 6억 톤 바다 탄소저장소 확보했다

-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텍사스주가 주관한 탄소포집저장(Carbon Capture and Storage, CCS)사업 국제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음
-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스페인 렘솔, 미국 카본버트, 일본 미쓰이 미국법인 등 글로벌 에너지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했으며, 지분은 10%를 차지함
- 사업대상 지역은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 인근 해상 578km<sup>2</sup>로, 서울시 면적과 유사한 수준임
- 컨소시엄은 저장소 평가를 진행한 후 개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,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달 중 미국에 새 회사를 설립하고, 추가 CCS사업도 추진할 방침임

(한국일보, 2023.09.06) 이윤주 기자

(탈사이트, 2023.09.06) 김수정 기자

# 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기간 : 2023.09.01(금) ~ 2023.09.07(목)

제공일시 2023.09.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.398.7675

## 유럽 패스트패션업체, EU의 폐기물 산업 단속에 대비 중

- EU가 폐기물 단속을 강화하면서, 헌 옷을 재활용, 재사용하는 자선단체 모다 레(Moda Re)와 같은 단체가 주목 받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
- 모다 레가 헌 옷을 재활용하는 최초의 업체는 아니지만, 유럽의 패스트패션 업체들이 다가오는 EU의 폐기물 산업 단속에 시급히 대응하게 되면서 참고할 사례를 찾고 있기 때문임
-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매년 유럽의 의류 폐기물 520만 톤 중 4분의 1 미만이 재활용되고 수백만 톤이 매립지에 묻힌다고 지난 7월 밝혔다. 2021년 EU 보고서에 따르면, 의류 폐기물 증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부족하지만 2010년경부터 일부 유럽 국가에서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한 수집량이 증가해왔음
- EU는 의류의 재활용된 내용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2030년까지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섬유 제품이 내구성, 수리 및 재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섬유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EU가 목표로 하는 섬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규모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60억~70억 유로(약 8조5191억~10조원)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음
- 스페인 패스트패션 브랜드 자라(Zara)의 모기업인 인디텍스(Inditex)는 모다 레에 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음. 인디텍스는 모다 레에 3년에 걸쳐 350만 유로(약 50억원)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
- 모다 레는 이를 바탕으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, 빌바오, 발렌시아에도 시설을 확장할 예정임. 현재 모다 레는 현재 100개가 조금 넘는 중고 상점을 향후 3년 동안 300개로 확대하여 재판매 수량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현재 모다 레가 받는 의류의 약 40%는 재활용을 위해 다른 시설로 보내지는데, 그중 5분의 1만 재활용 섬유가 됨. 모다 레는 이 비율은 향후 3~4년 동안 70%로 높일 계획을 갖고 있음
- 또 모다 레에 기증된 옷의 거의 절반이 카메룬, 가나, 세네갈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재판매용으로 배송되고 있음. 모다 레는 아프리카로 보내는 옷의 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
- 모다 레는 EU의 폐기물 산업 단속에 대비해서 1년에 처리하는 양을 4만 미터 톤, 현재의 두 배로 늘릴 계획임. 모다 레의 이사 알베르트 알베리히(Albert Alberich)는 "이것은 시작일 뿐"이라며, "우리는 패션 회사들을 위해 헌 옷들을 유럽의 원료로 계속해서 바꿔나갈 것"이라고 포부를 밝혔음
- 또한, 스페인에서는 H&M, 망고, 인디텍스 등 경쟁사들이 2025년 1월부터 EU회원국들이 섬유를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도록 하는 EU법에 대응하여 의류 폐기물 관리를 위한 비영리 협회를 만들었음
- 스페인처럼 섬유 폐기물 협회가 다른 유럽 국가에도 설립되어 있음. 프랑스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리패션(Refashion)이라는 조직 아래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
- 스페인 인디텍스뿐만 아니라 독일의 푸마(Puma)는 독일의 의류 수집 및 분류 회사 I:CO, 스위스의 텍사(Texa) 및 이탈리아의 베스티솔리데일(Vestisolidale)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

(인팩트는, 2023.09.05) 홍명표 기자